

“황금 추석 연휴 가족과 국내여행 떠나요”



영광 백수해안도로

올해 추석은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축제, 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절호의 기회다. 나주시 주최로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는 남도의 절충 영산강의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농업과 정원, 마라톤을 결합한 한마당 잔치가 펼쳐진다. 추석을 즐겁게 해줄 전남지역의 관광명소, 드라이브코스를 모았다.

△2025 나주영산강축제

2025 나주영산강축제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주제로 펼쳐진다.

특히 나주농업페스타(10월 8~12일),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10월 8~29일),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10월 12일)가 함께 열려 축제의 규모와 즐길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관광객 36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인 축제를 치렀고 올해 그 감동을 이어받아 더 풍성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부스와 휴식 공간도 확대해 관광객들이 편히 앉아 먹고 갈 수 있도록 좌석을 지난해 500석에서 올해 1000석 규모로 확대했다.

23만1405㎡(7만평) 들녘에 1억송이의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장관이 펼쳐지고 물 위를 걸어 강을 건너는 보행교, 밤마다 펼쳐지는 뮤직 페스티벌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특히 개막식 주재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창작뮤지컬 '왕후, 장화'는 고려 태조 왕건의 왕비인 나주 출신 장화왕후 이야기를 담은 수작으로 박명성 총감독의 기획하에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주무대는 시스템을 중앙으로 집약시킨 360도 아일랜드 구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객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해 무대 미학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축제 기간 중 주무대에서 매일 밤 열리는 '영산강 뮤직 페스티벌'에는 송가인, 김용빈, 박지현, 최정원, 마이클리, 김호영, 카이, 아이비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영산강의 밤을 아름답게 만들 예정이다.

개막식 마지막에는 영산강 상공에서 화려한 드론 라이트쇼, 불꽃쇼가 어우러져 몰입형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이랑 함께하기 좋은 곳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은 해양 생물과 바다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실내 체험과 해양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가족 맞춤형 체험 공간이다. 해양생물 전시, 바다의 원리 탐구, 오션VR, 미니 아쿠아리움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바다의 신비를 배울 수 있다. (10월 10일 휴관)

국내 최대 양서·파충류 전문 전시관인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약 90종 350여마리의 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한국관, 사막관, 열대관, 체험관, 아나콘다관, 교육관으로 구성됐으며, 환경 교육과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어린이가 살아있는 동물과 직접 교감하며 학습할 수 있다. (10월 10일 휴관)

고흥군 해장만 오토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고흥 나라올라우주랜드는 우주선 형태의 외관과 다양한 우주테마 체험형 콘텐츠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1층에는 그리기 체험존, 블록·자석 놀이, 슈팅 게임존, 휴게공간과 2층에는 그물망 놀이터 등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다. (10월 6·10일 휴관)

화순 키즈라리는 대규모 실내 어린이 놀이터와 창의 놀이와 배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다양한 테마존, 신체 활동장, 어린이직업체험관 등이 있어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이용하기에 좋다. 아이의 창의력, 사회성, 신체 발달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10월 5~6일 휴관)

해남 우항리는 세계 최초로 익룡, 공룡, 새 발자국 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 지역이다. 이곳에 위치한 해남 공룡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 공룡 전문 박물관이다.

박물관 내부는 1~2층 8개의 전시실로 구성됐으며, 우항리 지층과 공룡 발자국,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공룡과 익룡의 골격 화석의 전시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을 보유하고 있다. (추석 연휴 운영, 휴관 없음)



순천만생태체험터



고흥 나라올라우주랜드

△걷기 좋은 길

영암 구림한옥마을은 220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마을로, 역사적인 설화와 인물을 배출하고 아름다운 고택과 정자·누정·돌담 등이 남아있는 마을이다. 마을 내에는 50여개소 민박촌을 형성하고 있어 고즈넉한 한옥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고흥한복문화원에서 어린이한복, 전통혼례복 등 한복을 입고 마을을 누비며 조선시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한복체험은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다.

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은 사찰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은사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과 천은저수지를 한바퀴 도는 3.3km의 순환형 산책로이다.

목포 고하도 해상테크길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대승한 후 머물렀던 고하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된 바다 위 둘레길이다. 이 둘레길은 용머리탐방로, 해안돌곶탐방로, 용오름둘레길 3구간으로 나뉜다.

영광 물무산행복숲은 물무산 행복숲은 3대가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도록 경사와 계단이 없는 순환형 둘레길이 특징이다. 편백 병상원, 가족명상원, 하늘공원 등 자연속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숲 속에 위치한 질박한 맨발 황톳길 체험은 건강과 재미를 선사한다.

순천만습지는 2260만㎡(800만평)의 광활한 갯벌과 54만㎡(60만평)의 갈대밭, 염습지, 섬 등의 다양한 지형과 340여종의 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순천만습지 안에 있는 대대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생태체험선을 타고 갯벌과 갈대군락을 둘러볼 수 있다. 소요 시간은 왕복 30~35분으로 해설사를 통해 순천만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해안 드라이브코스

여수 일레븐브릿지는 낭도, 백야도 등 11개의 섬을 잇는 해상교량으로 현재 7개의 다리가 연결돼 있으며, 2027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여수 돌산과 고흥 영남면을 한 번에 달릴 수 있어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둔병, 낭도, 적금, 팔영 등의 대교 위에서 내려다보는 다도해의 풍경은 장관을 이룬다.

고흥 거금해안도로는 국토부 '남해안 해안 경관

도로 15선'에 선정된 곳으로 풍경이 아름다워 바이크와 자전거 동호회의 필수 여행지로 소문난 곳이다. 국도를 따라 오전쪽으로 달리면 다도해 비경이 펼쳐진다. 중간지점 거금생태숲은 면적 330만㎡에 야생화 군락지, 숲 관찰로, 구름다리 등이 조성됐다. 구름다리에서 바라본 아찔함이 느껴지는 다도해의 비경을 보러 사계절 내내 등산객,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해남 목포구등대 해안도로는 서해 낙조와 다도해의 드넓은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메릴드 바다와 낙조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드라이브 코스의 시작점인 등대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축조된 7.2m 높이로 95년간 육지의 관문 역할을 한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이다. 해안선을 따라 굽이 굽이 이어진 도로는 드넓은 바다를 한눈에 담으며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다. 특히 노을이 지는 무렵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탁 트인 바다, 갯바위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이 펼쳐진다.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서해 낙조를 조망하기에 좋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롭게 경치를 즐겨볼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과 어우러진 갯벌과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풍광 명소이다. 이 도로는 망운면 조금나루 해변에서 시작해 현경면 봉오제까지 10.75km 이어진다. 이 도로는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구간마다 만남의 길, 자연 행복의 길, 노을길, 느리게 걷는 길 4개의 산책로가 있어 드라이브를 즐기다 잠시 차에서 내려 해지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이다.

신안 흑산도 해안일주도로는 섬 전체를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다. 자가용으로 드라이브를 즐긴다면 신안 송공항에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한다면 목포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해상왕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왕성하게 펼쳤던 상라봉 정상 전망대에 올라 흑산도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아울러 유배문화공원, 세조각공원 등을 둘러보며 흑산도의 역사·문화, 자연의 정취를 진하게 느껴볼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나주영산강축제, 8~12일 '오감 만족' 즐길거리 총집합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등 동물과 교감·배움 한번에

산림욕·맨발 황톳길 체험 건강·재미 선사...경관 조망도

영광 백수해안도로 등 다도해 풍경 역사·문화·자연 만끽



영암 구림한옥마을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